

김대진 총장, 학교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 3·1문화상 예술상 수상 상금 전액 학교 발전재단에 기부 약속
- 김대진 총장, “개성과 창의력 넘치는 예술가 양성에 쓰이길 바란다”



<2023년 3월 1일 열린 '제64회 3·1문화상 시상식'에서 예술상을 수상한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제64회 3·1문화상 예술상 수상 상금 1억 원을 학교 발전을 위해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로도 유명한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인으로서 세계적 후학을 양성하는데 기여한 예술교육자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 3·1문화상 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3월 1일 열린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에

국부인회 회원으로 3·1운동에 참여하셨다가 옥고를 치른 신의경 독립운동가가 외조모님이시다. 어린 시절 피아노를 처음 가르쳐주신 분도 외조모님이셨다.”고 소개하면서 “오늘 수상하는 3·1문화상의 무게와 의미를 더욱 크게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특히 “모든 것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터전‘한국예술종합학교’이 있어 가능했다. 그 터전을 마련해 주신 이강숙 초대 총장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그 뜻을 이어받아 단단한 국내 연주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제2도약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뜻에 답아 3·1문화상 상금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환원하여 개성과 창의력이 넘치는 예술가 양성에 쓰도록 하겠다.”고 기부를 약속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예술종합학교 대외협력과 홍보기획팀장 정명숙(☎02-746-9074), (재)한국예술종합학교발전재단 법인팀장 박찬미(☎02-746-90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